

6·25전쟁시 독일 의료지원단 파견과 성과

조성훈*

| 목 차 |

- I. 문제 제기
- II. 서독 의료지원단의 파견 과정
- III. 서독 적십자병원 개설과 성과
- IV. 독일 의료지원 활동의 의료지원국 지위 여부

| 국문초록 |

독일 정부는 1953년 4월 유엔군을 위한 야전병원 파견 의사를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과 유엔 본부에 전달한 후, 1954년 5월 부산에 적십자병원을 설립해 1959년 3월까지 운영하였다. 5년 동안 병원에서는 입원환자 22,516명, 외래 환자 282,468명 등 3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 또한 한국인 의사 연수와 간호사를 양성했다. 그러나 독일 적십자병원은 정전협정 이후에 활동했기 때문에 그동안 6·25전쟁 시기 의료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독일 적십자병원의 한국 파견이 지연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테나워 수상은 1953년 4월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세계와 협력을 상징화할 의도로 야전병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원 협정을 체결했을 때도 미국은 개별 국가로서 아니라 유엔군의 대행 국가였고, 서독병원의 활동에

*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qurino@naver.com

대해 유엔사무총장을 통해 북한과 중국에 통보했다.

병원 임무도 독일 정부는 유엔 기구의 요청으로 부산으로 피난한 많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자선 활동으로 방향으로 바꾸었다는 입장이다. 후베르 병원장은 병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 예하로 들어감으로써 실질적인 면에서 미 육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서 운영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독일 의료지원 활동은 파견 당시와 운영에서 유엔군과의 협조 정신을 강조했고,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한국전 전투기간 산정 시 1955년 1월 말과 1956년 4월까지 등의 예를 보더라도 6·25전쟁시기 유엔군 지원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의료지원국, 서독 적십자병원, 야전병원, 유엔 임무, 후베르 병원장

I .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6·25전쟁시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병력, 의료단, 구호물품 등을 지원받아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파병국과 의료지원국의 활동에 대한 연구와 기념비 건립, 참전자 초청행사 등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물자지원국에 대해서도 민간단체가 제기한 성과를 반영해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유엔본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해 검토한 결과, 6·25전쟁 시기 한국민간구제단과 한국재건단을 통해 의료보급품, 미곡, 식염 등 민간인에게 필요한 구호물품을 지원한 물자지원국은 지원의사 표명국 외에 총 39개국임을 확인하였다.²⁾ 독일연방공화국(서독)도 47,619달러의 의약품을 지원했다.

2) 양영조, 『6·25전쟁시 국제사회의 대한 물자지원 활동』, 『군사』 87, 2013.6, 78~79쪽. 물자지원국 39개국 도표는 이 논문을 참고할 수 있으며, 월드피스자유연합에서 2010

이때 물자지원국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독일의 의료단 파견 사실에 대해 주목하지 못했다. 서독 정부는 1953년 4월 야전병원 파견을 미국과 유엔에 제의한 후 이듬해인 1954년 5월 부산에 적십자병원을 설립해 운영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독일은 6.25전쟁 시기 의료지원 5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독일의 의료지원단 활동에 대해서는 병원이 운영되었던 부산 지역에서 시사(市史)와 의료사 등에³⁾ 설립 경위와 실적에 대해 간단히 언급되었다가,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졌다. 2013년에 한국전쟁에 대한 전투사와 연감 등의 성과를 냈던 에드워즈(Paul M. Edwards)가 전쟁에 기여했던 45개국을 다루면서 독일의 의료지원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독일 적십자사의 관련 자료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아쉬워했다. 2015년에는 독일 의료지원 활동을 냉전체제 아래 동서간의 경쟁적인 인도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기도 했다.⁴⁾ 군사편찬연구소에서 2015년 12월 발간한 『6.25전쟁과 유엔군』에서 기존 의료지원국 5개국 외에 독일 정부의 의료지원 파견과정과 활동을 간단히 소개했다.

다행히 1997년 10월 24일 부산 서독 적십자병원에서 진료를 했던 최하진 박사와 환자였던 이한식이 보은의 마음으로 옛 부산여고 터에 조그마한 기념비를 세웠다. 2010년 5월에는 월간중앙에 “전쟁 한국” 치료한 독일병원 있었다”고 소개되었다.⁵⁾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7일 주

년 9월 6.25전쟁 시기 지원의사를 표명한 나라를 포함해 대한민국을 지원한 국가 규모를 기네스북에 등재하였다.

- 3)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3, 1991. 정규환, 『부산지역 의료 130년사』, 연문씨앤피, 2008.
- 4)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North Carolina: McFarland & Company, Inc., 2013; Young-Sun Hong, *Cold War Germany, Third World, Global Humanitarian Regime*, Cambridge Univ. Press, 2015.
- 5) 『“전쟁 한국” 치료한 독일병원 있었다』, 『월간중앙』 2010.5.

한 독일 대사관에서는 독일 통일 20주년 행사를 하면서, 부산 서독병원에서 활동했던 의사와 간호사를 초청했다. 주독일 한국대사관에서도 독일 의료지원단 파견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주목하고 2015년부터 사실관계 파악 및 생존자 확인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듬해 11월 하순에는 ‘62년만의 감사’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본고에서는 서독 적십자병원의 활동 사실을 재조명해, 6·25전쟁 시기 의료지원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려 한다. 활용될 자료는 후베르(Günther Huwer) 병원장 수기, 독일 외무부 문서, 한국 외무부 및 보건사회부 문서, 독일적십자사 문서를 비롯해 잡지, 신문, 당시 의료진으로 근무했던 의사의 회고록과 증언 등이다.⁶⁾

II. 서독 의료지원단의 파견 과정

1. 한국전 발발과 독일의 대응

북한의 남침 직후 유엔이 채택한 1950년 6.26 및 6.28결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남진이 계속되어 국군 및 유엔군의 막대한 전·사상자 발생과 함께 민간인의 피해가 급증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50년 7월 31일 ‘한국 민간인에 대한 구호’를 결의하였다.⁷⁾ 이러한 유엔결의를 토대로 유엔 및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자, 우방국은 전투부대를 파병하거나 의료 및 물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유엔군의 군사작전 및 전·사상자 처리는 물론이고 한국의 전제민 구호와 전후복구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6) 독일 무관, 독일적십자사, 부산 독일 명예영사관, 국가기록원, 우원형 원장 등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7) 정일형 편, 『한국문제 유엔결의문집』, 국제연합한국협회 출판부, 1954, 146~149쪽.

6.25전쟁 중 첫 의료지원국인 스웨덴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50년 6월 28일 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공격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자 7월 14일 1개 야전병원단의 파견의사를 유엔에 통보하였다. 이후 8월에는 덴마크, 11월에는 인도, 이듬해 3월에 노르웨이가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패전국인 이탈리아도 유엔 회원국이 아닌 나라로서 1950년 9월 27일 유엔본부의 읍저버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의료지원 의사를 전달했다.⁸⁾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의료단 파견은 1953년 4월 7일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수상이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을 방문하였을 때, 공식 제의했다. 이미 1951년 3월 독일 정부와 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의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자 노력했으나, 재정적 지원은 구체화되지 않았다.⁹⁾

반공정권이 수립되었지만, 당시 점령국 지배를 받고 있던 서독에서는 주권 회복이 우선이었다.¹⁰⁾ 6.25전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전승국은 독일 재무장을 서둘렀으나, 서독은 1955년 11월에 이르러서야 독자적인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다.¹¹⁾

오히려 동독(독일민주공화국)이 북한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이었다. 1950년 9월 30일 결성된 ‘조선원조위원회’는 민간기부금을 모아 1957년 10월 말 해체될 때까지 약 4천만 마르크의 현금과 물품을 북한으로 보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1952년 6월 25일 북한 원조조약을 체결

8) 박지욱, 『한국전쟁과 부산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의 의료구호 활동』, 『의사학』 91-1, 2010.6, 191쪽. 보훈처, 『6.25전쟁 의료지원국 참전사』, 2014, 180쪽.

9) “Dr. Petra Liebner’s Letter” April 18, 2018.

10) 외교부, 『독일개황』, 2017, 186-187쪽. 김동춘 기외르기 스텔. 크리스토프 폴만 외(안인경·이세현 역), 『반공의 시대』, 돌베개, 79-80쪽.

11) 최종고, 『한강에서 라인강까지』, 유로, 2005, 244쪽. 한국이 독일과 외교관계를 재개한 것은 1954년 10월 1일 독일 레마겐에 총영사관을 설치하면서였고, 이듬해 1955년 12월 1일에 양국은 상호국가를 승인하였다.

해, 국가적 프로젝트로 함흥 재건 및 북한 고아와 대학생들의 동독 파견이 이루어졌다.¹²⁾

1952년 1월 초 미 국무부는 서독이 혈액 제공과 의료지원단(Medical Unit) 파견을 제안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 무렵 서독 내무부는 1953년 3월 한국에 10명의 의사로 구성된 야전병원을 파견하려 했다.¹³⁾

미 육군부는 국무부에서 서독이 파리에 있는 유엔한국재건단(UNKRA)에 1952년 1월 10일 군사적인 효용(military use)이 아니라 한국의 민간인 구호를 위해 혈액이나 의사, 간호사, 기술자, 의료품 등의 의료지원을 이탈리아 의료단의 수준을 넘지 않게 제안할 듯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국재건단은 민간인 구호와 관련해서 혈액이나 의료단을 유엔 민간원조사령부(UNCACK)에 이관할 것이라고 이해했다. 미 육군부는 극동군사령부에 이러한 독일의 제안에 대해 독일 정부에 통보해야 하므로 수용 가능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¹⁴⁾

미 극동군사령부는 육군부에 혈액은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리고 가능한 빨리 의사, 간호사, 기술자 등의 규모를 비롯해 남녀 구성 및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탈리아 의료단과 같이 물자지원을 하면 되는지도 확인했다.¹⁵⁾

이에 따라 미 육군부는 극동군사령부에 독일의 의료지원단 파견 타진을 보고 받고 국무부에 통보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독일의 혈액 제공에 대해 반대 입장이어서 어떤 경우든 수용하지 않을 것

12) 김일성과 북한 정부대표단이 1956년 6월 7일에서 13일까지 동독을 방문했다(역사문제연구소·포츠담현대사연구센터,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 역사비평사, 2010, 186~187쪽. 통일연구원 편, 『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 선인출판사, 2006, 19쪽).

13) 『연방 정부 합의에 이르기까지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1964.6.4., DRK문서; Young-Sun Hong, *Cold War Germany, Third World, Global Humanitarian Regime*, p.92.

14) “DA to CINCFE, Tokyo” Jan. 4, 1952, Bx 4516/ RG 319 Army-AG, 국사편찬위원회 (이하 국편), 전자자료관.

15) “CINCFE, Tokyo to DA” Jan. 7, 1952, Bx 4516/ RG 319 Army-AG, 국편.

이라고 했다. 의료지원단 장비와 인력 지원에 대한 정보 요청은 독일이 실제로 제안되고 수락되기 전까지는 제공될 수 없다고 했다.¹⁶⁾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유엔민사원조사령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후 의료지원단 파견 관련 제안이나 교섭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구체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일 정부는 긴급구호자금으로 1952년 11월 25일 47,619달러 상당의 의약품 지원을 약속했으나, 그 선적도 늦어져 1953년 9월 말 당시도 한국에 도착되지 않고 선적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독일적십자사를 통한 별도의 지원도 없었다. 당시 스웨덴 적십자사는 중고 의류를 1951년 8월과 이듬해 2월 두 번에 걸쳐 172,512달러 어치를 지원했고, 덴마크 적십자사도 중고 의류 2만 달러 어치를 기증했다.¹⁷⁾

2. 의료단 파견 과정

독일의 의료단 파견 의사는 1953년 3월 말 독일 아테나워 수상이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과 회담을 추진하면서 구체화되었다. 회담 전에 미국무부와 회담 의제(Agenda for Adenauer Visit)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독일 측은 의료단 파견 의도를 “공산주의자의 침략에 맞서는 자유세계의 투쟁에 대해 독일의 연대를 과시하기 위해”(이하 밑줄은 필자), 수상이 한국에 의료단(medical unit)을 제안하려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의료단은 완비된 ‘야전병원(Feldlazarett)’이라고 설명했다.¹⁸⁾

4월 7일 아테나워 서독 수상은 야전병원 파견을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16) “DA to CINCFE, Tokyo” Jan. 12, 1952, Bx 4516/ RG 319 Army-AG, 국편.

17) UN, “Report of The Agent General of The UNKRA for the period !5 Sep. 1952 to 30 Sep. 1953”, New York, 1953, p.20, 28, 군사편찬연구소 CD 1185.

18) “Memo by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German Affairs(Riddleberger) to the Secretary of State: Agenda for Adenauer Visit” March 29, 1953,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2~54/v07p1/d172>(열람일: 2018. 3.12.).

령에게 제안하면서, “독일이 미국을 위한 믿을만한 파트너가 될 것이고 미국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약속했다. 이튿날 미 국무장관이 본(Bonn)에 있는 독일 미국고등판무관실에 보내는 회담 요약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을 위한 완비된 의료단 제안에 대해 감사한다고 제일 먼저 언급했다.¹⁹⁾ 리세르(Hans E. Riesser) 유엔 독일 대표도 임병직 유엔대사에게 독일 제안 배경을 설명하면서, 아데나워 독일 수상이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세계와 협력을 상징화할 의도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연합군을 위해 야전병원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²⁰⁾ 독일로서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첫 국제적인 인도적 임무를 맡게 된 것이었다.²¹⁾

1953년 4월 30일 할슈타인(Walter Hallstein) 서독 외무차관은 함마숄드(Dag Hammarskjold) 유엔사무총장에 야전병원 파견 제의를 알렸고, 리세르 유엔 독일 대표도 유엔사무총장에게 아데나워 수상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한국에서 유엔군으로 싸우는 미군을 위해 야전병원을 보낼 것이다(an Army Field Hospital for the US troops fighting within the ranks of UN forces in Korea)는 제안과 그 수용을 언급하고, 세부적인 협조를 위해 내무부에서 더너 박사가 파견될 것이라고 알렸다.²²⁾

유엔사무총장은 1953년 5월 4일 독일의 의료단 파견제의에 대해 미군도 포함된 유엔군사령군사령부를 대신해 감사의 답변을 했다.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체결되었으나, 9월 하순에 독일 유엔대표부는 유엔군

19)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Office of the U.S. High Commissioner for Germany, at Bonn” April 8, 1953; “U.S. Delegation Minutes of the First Meeting of Chancellor Adenauer and President Eisenhower, The White House”, April 7, 1953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2-54v07p1/d172>(열람일: 2018. 3. 14).

20) 『임병직→ 이승만 대통령 부부』 1954.2.16., 국편, 이승만관계 사료집.

21) Young-Sun Hong, *Cold War Germany, Third World, Global Humanitarian Regime*, p.83.

22) “Letter from H. E. Riesser to D. Hammarskjold” April 30, 1953, 국편 전자사료관.

사령부가 독일의 제안을 1953년 9월 23일 수용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1953년 12월 8일 할슈타인 외무차관은 병원파견 제안을 독일 정부에 보고했고, 비로소 공표했다.²³⁾

이어서 독일과 미국 정부는 1954년 2월 12일 ‘한국에서 독일 적십자 병원에 의한 지원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oncerning Participation of a German Red Cross Hospital in Connec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peration)’을 체결했다.²⁴⁾

협정 주체가 미국과 독일연방공화국으로 되어 있지만, 미국은 개별 국가로서 아니라 한국에서 유엔군의 대행 국가(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executive agent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Korea)로 설명되어 있고, 독일적십자병원의 참여도 유엔 작전(UN operation)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미 국가안보회의에서는 1954년 3월 하순 “동맹군 병력 중 유일하게 증강된 것은 서독에서 온 의료부대뿐”이라고 높이 평가했다.²⁵⁾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민사원조사령부(the Korea Civil Assistance Command)²⁶⁾가 독일 적십자병원에 대한 작전통제를 하고, 이 사령부의

23) “Department to HICOG, Bonn” Sep. 29, 1953, Box 2-9/ RG 59 Records of Pertaining to UN Korean Relief Organizations, 1950-1960; 『임병직→이승만 대통령 부부』 1954.2.16., 국편, 이승만관계 사료집. 최형식, 『독일의 재무장과 한국전쟁』, 혜안, 2002, 191~192쪽. Young-Sun Hong, *Cold War Germany, Third World, Global Humanitarian Regime*, p.92.

24)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oncerning Participation of a German Red Cross Hospital in Connec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peration”, Feb. 12, 1954, 국가기록원. 병원 이름은 공식적으로는 독일연방공화국 적십자병원이나, 본고에서는 줄여서 독일 적십자병원 혹은 당시 서독 적십자병원, 부산 서독병원 등으로 혼용했다.

25) “국가안보회의 170/1에 대한 경과보고서: 한국에서 미국의 목표와 행동방침” 1954.3.26., 국편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요청을 받아 미 극동군군사령부에서 군사적 보급품과 장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후 1955년 9월 30일자로 야전 기능을 해제하고 9월 1일부터 미 8군이 한국민사원조사령부를 작전통제하여, 독일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²⁷⁾

유엔한국재건단은 유엔 총회 산하 기구로 전쟁으로 피해를진 한국을 재건하는데 집단적 유엔 조치로 보건 및 위생, 교육, 산업, 관개시설, 등을 다루었고, 한국민사원조사령부는 유엔군사령부 예하 기구로 구제와 복지, 발전, 교통 및 통신 등으로 역할을 나누었다.

지원 협정에 따라, 독일 정부는 1954년 2월 18일 한국에 세워질 적십자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적십자사와 합의를 했다. 독일 정부는 연방공화국이 한국의 군 병원을 직접 후원하는 것보다 적십자사가 활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²⁸⁾

독일 정부는 적십자사를 한국에 대한 그들의 공인 원조 단체로 선정했다. 독일 적십자사는 1954년 1월 1일부터 한국의 독일 적십자병원에 대한 후원을 맡고, 정부는 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인력, 물자, 기타 비용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독일 적십자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독일 적

26) 유엔민사원조사령부(UNCACK, 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는 1952년 8월 1일부터 한국병참사령부(KCZC: Korean Communications Zone Command)에 통합되었다가, 1953년 7월 1일부터 한국민간원조사령부(KCAC: Korean Civil Assistance Command)로 다시 바뀌어 8군사령부가 아닌 유엔군사령관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되었다(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한국통일부흥위원단보고서』, 1965, 89쪽. 김점숙, 『6·25전쟁과 유엔의 역할-온크라 원조를 중심으로』,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국가수호정신』 1, 2005, 228쪽).

27) 『동아일보』 1964.12.3.; “Future Status of German Red Cross Hospital in Korea” Aug. 4, 1955, 국편 전자자료관. 미 국방부에서는 독일 의료단 파견이 정전 후 이뤄짐으로써 군 예산으로 지원할 지에 대해 고민을 하기도 했다(Bureau of Far Eastern Affairs, “Department of State Memo: Reimbursement for Logistic Support Which may be Provided to the Projected German Hospital Unit in Korea” Sep. 23, 1953, 국편 전자자료관).

28) 『독일적십자사 총재가 외무부 장관에게』 1953.9.2., DRK(독일적십자사) 문서.

십자사는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매 회계 연도 마다 사업 계획은 외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²⁹⁾

서독의료단 선발대가 1954년 1월 18일 출발할 때, 독일 측은 할슈타인 독일 외무차관이 독일을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미국을 대표해 헨디(Handy) 장군이 참석하기를 요청했다. 헨디 장군은 동의할 수 있지만, 의료단이 속하게 될 유엔군사령부를 대신해 참석하기에는 권위(authority)가 부족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에서 국방부가 적절한 지시로 헨디 장군을 파견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해준다면 크게 감사하다는 의견을 냈다.³⁰⁾

한국 정부에서 독일 의료지원단 파견 성격을 어떻게 인지했는지도 중요하다. 서독에서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전병원 시설과 인원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소식에, 한국에서는 “제나라 부흥도 통일도 채 이루지 못한 패전국이 이토록 원조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놀랄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³¹⁾ 한국 외무부에서는 서독 적십자병원이 1953년 아테나워 수상이 방미 시에 유엔의 이념 아래 서독으로 하여금 적십자병원을 국제연합 산하 의료기관으로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것을 협약하여 유엔군 산하 주한 의료기관으로서 중요 임무는 유엔군 전상환자 치료와 민간인 구호사업으로 인식했다.³²⁾

하지만 일부에서는 독일의 지원이 민간인구호 활동의 일환이 되길 바랐다. 서독 정부가 한국에 의료단을 보냈다는 전문을 받은 즉시, 임병직 주 유엔대표부 대사는 주유엔 서독대표를 만난 후 “아테나워 수상이 외교적인 제스처로 의료단을 미국에 주기로 하는 것은 실수”라고 지적

29) 한국에 세워질 독일 적십자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방 정부와 독일 적십자사 간의 합의

30) “Bonn to Secretary of State” Jan. 4, 1954, Box 2-8/ RG 59, 군사편찬연구소 CD 1185.

31) 『경향신문』 1954.1.16., ‘여작’.

32) 『외무부장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서독병원에 관한 문의의 건』, 1957.1.12., 국가기록원.

했다. 그는 정전 후 상황 변화에 따라, 병원 제안이 한국 민간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고 그 결과 한국에서 유엔의 과업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³³⁾

1953년 12월 10일 당시 한국 보건사회부 장관도 서독 정부가 전란으로 인해 황폐한 한국의 보건사업을 원조하기 위해 특히 의료구호사업으로 파견했다고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보사부에서는 이 원조사업이 전시 전후를 통해 한국 보건사업 재건상 절대 환영할 것이고, 그들의 활동으로 의료 요원의 기술적 향상, 의학 교육 수준의 향상은 물론이며 또한 의료시설 개선이 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³⁴⁾

한편, 유엔한국재건단은 서독의 의료단 제안을 듣고, 독일 관리들에게 이를 재건단을 통해 구현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아데나워 수상이 이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독일 관리들은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없었다.

미 국무부에서는 독일이 점령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재건단에 기부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독일이 300~500만 달러를 기부해준다면 감사하다는 뜻을 고등판문관실에 전하도록 했다. 미국 측은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실적을 언급하면서 협의를 했으나, 서독 정부는 한국재건단을 통해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았다.³⁵⁾

33) 『임병작→ 이승만 대통령 부부』 1954.2.16., 국편, 이승만관계 사료집.

34) 보사부장관, 『서독의료단 방한에 관한 서한 이첩에 관한 답신의 건』 1953.12.10., 국가기록원.

35) “Bonn to Department of State” Sep. 29, 1953, Box 2-9/ RG 59 Records of Pertaining to UN Korean Relief Organizations, 1950-1960; “Department to HICOG, Bonn” Oct. 5, 1953, Box 2-9/ RG 59 Records of Pertaining to UN Korean Relief Organizations, 1950-1960. ; “John L. Thurston, Acting Chief of Office, UNKRA to Graham Hall, Special Assistant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UN Affairs” Dec. 23, 1953, Box 2-8/ RG 59 Records of Pertaining to UN Korean Relief Organizations, 1950-1960.

Ⅲ. 서독 적십자병원 개설과 성과

1. 병원 창설 및 의료진

서독 의료진은 항공기로, 병원 시설은 배로 수송되었다. 의료단 선발대는 1954년 1월 하순에 서울역에 도착해 후베르 서독 적십자병원장을 비롯해 워팅, 오타 대령 등은 한국민사원조사령부의 안내로 병원 설치문제, 한국의료 사업시찰 등에 관해 최재유 보건부 장관 등을 비롯한 의료관계자를 방문했다.³⁶⁾

이어서 1954년 2월 초에 의사, 간호사 등 48명이 도착해, 부산에 서독 병원 개설을 준비했다. 적십자병원이 부산 서대신동 부산여고를 인수한 날은 1954년 4월 24일이었다. 이를 20여 일 간 개보수 작업을 통해 5월 17일 첫 환자를 받아, 이날을 개원식으로 기념했다.³⁷⁾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혼선이 있었다. 1954년 1월 한국민사원조사령부는 서독 적십자 병원을 전쟁 시기 미군 미 제21야전병원으로 징발되어 사용해왔던 부산여고로 배정했다.³⁸⁾ 그런데 1953년 12월 10일 당시 보건부 장관은 독일 의료단의 사업 근거지로서 대전도립병원과 온양국립구호병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 한국민사원조사령부 당국과 합의했다고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³⁹⁾

이 때문에 나중에 학교 건물 반환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36) 『동아일보』 1954.1.30, ‘후호 교수 일행 28일 착한’. 『경향신문』 1954.1.30., ‘서독의료사절단 29일 선발대 입장’.

37) 그런데 5월 7일로 잘못 정리된 경우는 바로잡아야 한다. 폐원일도 1958년 5월 28일로 기록되어 있다(부산시립중앙도서관 편, 『한권으로 정리한 부산시·부산교육연표』, 2013).

38) 『부산여자중학교 교사 명도 의뢰의 건』, 1957.11.18., 국가기록원.

39) 보사부장관, 『서독의료단 방한에 관한 서한 이첩에 관한 답신의 건』 1953.12.10., 국가기록원. 『한국 주재 독일 적십자병원 진료 규정』, DRK 문서. 『한국일보』 1959.2.16., ‘드러난 인술의 난맥지대’.

더욱이 당시 의료진은 학교 건물이 쥐가 나오는 위생조건, 의료진의 생활조건 등으로 독일의 척도로는 병원을 위한 적절한 곳이 아니라고 여겼다.

미국 측에서는 400병상을 가능한 빨리 한국에 보내도록 권장했다. 독일 정부에서도 우선 병원의 병상을 200개로 시작하지만 한국에서 얻는 경험을 토대로 병원의 최종 설계가 명확해지고 1954년 예산 배정을 통해 승인되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즉시 400개로 확장할 예정이었다.⁴⁰⁾

의료단 편성을 위해 독일 적십자사에서는 1953년 3월 31일 스위스 국제적십자연맹에 야전병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⁴¹⁾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참조해 의료진을 편성하였다.

의료단은 처음에 의사 12명과 간호사 25명을 비롯해 모두 8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의료진은 외과 5명, 내과 3명, 치과 1명, 방사선과 1명, 산부인과 2명 등 12명이었다.⁴²⁾ 이는 독일 적십자사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병원 규모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는 의사 15명, 간호사 15명, 의료 기사, 운전사 등 50명 규모였다.⁴³⁾ 부산 서독병원에는 산부인과도 있었고 최신식 의료기기로 어떠한 질환과 상처든지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 수준이었다.

후베르 병원장은 산부인과 전문가이고 중국에서도 오랫동안 진료를 한 경험 많은 의사였다. 쿨니히 외과과장을 비롯해 과장급 의사들은 독

40) “Department to HICOG, Bonn” Sep. 29, 1953, Box 2-9/ RG 59 Records of Pertaining to UN Korean Relief Organizations, 1950-1960, 국편; 『한국에 세워질 독일 적십자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방 정부와 독일 적십자사 간의 합의』 1954.2.6~18, 독일 연방자료보존실 문서.

41) “G. Alsted, Director, Health Bureau, League of Red Cross Societies, Geneva to W. G. Hartman, Secretary General, German Red Cross” April 23, 1953, 독일적십자사.

42) 『동아일보』 1954.2.1., ‘3월초 부산서 개원’. 김근호, 『하얼빈』, 넷북스, 2006, 330쪽.

43) “Sten Florelius, Secretary General to League of Red Cross Societies, Geneva” April 21, 1953, 독일적십자사.

일에서도 대학 교수에 버금가는 실력자들이었다. 외과의 경우, 기관 삼관 전신마취가 가능해서 가슴을 자유로이 개방할 수 있어 폐 수술뿐만 아니라, 흉곽 내 수술이 가능한 수준이었다.⁴⁴⁾ 이들은 후배 의사의 교육을 비롯해 배정된 한국인 의사 및 한국인 간호 인력의 교육을 담당했다. 당시 한국은 의료진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고, 수준도 낮았다.

의료진 규모는 의사 33명, 간호사 85명, 약사 5명, 기술자 18명, 사무원 30명, 기타 직원 22명 등 194명이었고, 한국인 직원은 150명에 이르렀다. 의사들은 대개 1년 정도 근무하고 순환되어 1959년 3월까지 독일 의사는 모두 117명에 이르렀다. 개원 초기부터 김근호를 비롯한 한국인 의사가 참여했고, 김숙진, 국복진, 홍숙희 등 여의사도 있었다.⁴⁵⁾ 200개 병상은 내과 90개, 외과 70개, 산부인과 40개였고, 병원장은 필요에 따라 배정을 변경할 수 있었다.

수술실, 검사실, 약국 등을 비롯해 병원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을 미군의 지원 아래 정비했다. 병원은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시설, 급수차, 세탁소, 재봉실, 의상실, 목공소, 취사장, 소방 시설 등을 갖춰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전기 기술자로 활동했던 칼 하우스는 독일에서 가져 온 디젤 발전기 2대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엑스레이 기기를 관리했다.⁴⁶⁾

서독 적십자병원은 야전병원으로가 아니라, 1954년 4월 15일 한국민사원조사령부로부터 공식 구호기관(relief organization)으로 승인을 받았다. 독일 유엔대표부에서 독일 병원의 임무는 한국재건프로그램 일환으로 민간인을 치료할 것이라는 점도 알았다.⁴⁷⁾

44) 김근호, 『하얼빈』, 330, 361쪽.

45) 『동아일보』 1954.6.28., ‘서독병원 정식 개원’. 『경향신문』 1958.5.17., ‘서독적십자병원 17일로 설립5주년 맞아’. 『평화』 1959.3. 12, 『수고하셨습니다』. 『‘전쟁 한국’ 치료한 독일병원 있었다』, 『월간중앙』; 김근호, 『하얼빈』, 329쪽.

46) 『국제신문』 2017.11.12., ‘여기가 정말 유령도시였던 부산 맞나요’.

47) 『부산서독적십자병원 관계』 1956~1959, 국가기록원, 14쪽. “Department to HICOG,

하지만 병원의 임무는 독일 정부가 원래 공산 침략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의 전반적인 계획 아래 전쟁 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이었다. 1954년 1월 18일 할슈타인 외무차관은 병원을 미국인에 인도하면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으므로 병원은 군인을 돕는 동시에 한국 민간인을 도와야 한다면서, 병원의 가장 고귀한 임무는 한국에 전쟁이 남긴 심각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⁴⁸⁾ 그런데 병원을 개설할 무렵 전상 군인들은 충분히 치료를 받고 있어서, 유엔 기구의 요청(the suggestion of the responsible UN Agencies)으로 공산 침략으로 부산으로 피난한 많은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자선 활동으로 방향으로 바꾸었다.⁴⁹⁾

안톤 수레겔 서독적십자사 사무총장도 아테나워 수상이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에게 한국전선의 부상자들을 위해 서독 야전병원을 제공하겠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정전협정이 체결되어(원문에는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서독적십자사는 야전병원 대신에 피난민의 집결지였던 부산에서 한국인 병자를 위해 봉사하기로 했다고 기억했다.⁵⁰⁾

1954년 3월초 독일 정부는 미 국무부에 한국에서 부상이나 질환자(the injured and sick) 치료를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독일 적십자병원의 장비와 인력의 존재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를 대표하는 미국 정부가 유엔사무총장에게 북한과 중국 공산주의자 당국에 통보하기를 원했다. 이에 따라 함마술드 유엔사무총장은 3월 19일 북한 박헌영 외상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외상에 통보했으나 아무런 답신이 없어서,

Bonn” Sep. 29, 1953, Box 2~9/ RG 59 Records of Pertaining to UN Korean Relief Organizations, 1950-1960.

48) 『경향신문』 1954.1.16., ‘여적’. 『입병직→ 이승만 대통령 부부』 1954.2.16., 국편, 이승만관계 사료집.

49) German Embassy, “Note Verbale” Feb. 16, 1959, 국가기록원. 당시 언론에서는 유엔 서독병원으로 부르기도 했다(『동아일보』 1957.9.9., ‘연내까지 반환, 군서 사용 중의 학교’).

50) 『동아일보』 1959.5.17., ‘서독병원이 겪은 3년’.

재차 5월 27일 확인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⁵¹⁾

후베르 원장은 당시 부산은 전기, 수도, 하수도 시설 미비와 도로 미흡으로 적절한 위생과 진료 업무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기억했다. 시 수도국에서 오는 수도물은 시간제로 공급되었고, 가물 때에는 병원의 급수차가 설새없이 외부의 우물이나 수로에서 물을 길러왔다. 외부에서 싣고 온 물은 자체 내에서 멸균 장치로 소독 후 사용하도록 했다.

이러한 여건에서 후베르 병원장은 병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 예하로 들어감으로써 실질적인 면에서 미 육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운영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다고 여겼다. 미군은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면 항시 기꺼이 지원했고, 때로는 분에 넘칠 만큼 제공하였다. 그는 만약에 병원이 한국 기관에 예속되었다라면 심각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임무인 가난한 환자를 돕는 이상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식료품은 시장에서 구입했고, 독일 직원들을 위해 현지에서 구입할 수 없는 일용품은 미군이 제공하여 독일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었다.⁵²⁾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독일과 공식적인 협력 관계에 있지 않아 협력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⁵³⁾

병원 예산은 약품과 의사, 간호사 등의 급여 등으로 때로는 연 1백만 달러 규모로 들어갔다. 5년간 예산은 개원 시기인 매년 3월 기준으로 1958년도에는 약 75만 달러 수준이어서, 총 350만 달러 규모였다.⁵⁴⁾

51) "Red Cross Hospital of the Fed. Rep. of Germany in Korea" March 4, 1954, 국편 전 자사료관; "USUN, New York to Department of State" June 3, 1954, 국편.

52) 후버(우원형 의사 역), 『재부 주한서독적십자병원 5년기』; Komitee 100 Jahre Deutsch-Koreanische Beziehungen, *100 Jahre deutsch-koreanische Beziehungen Bilanz Einer Freundschaft*(독일과 한국 100년 관계: 우정의 성과), 1984, p.57.

53) 『경향신문』 1958.6.1., '인방의 원조를 받아들이 태세도 갖추 줄 모르는 정부'.

54) 『서독병원 존속 문제에 관한 건』 1958.8.13., 국가기록원. 『경향신문』 1958.5.17., '서

2. 성과

서독 적십자병원은 250개 병상을 유지하면서 1954년 5월부터 1959년 3월까지 부산에서 운영되었다. 이 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방사선과, 약국 등을 갖추었다. 수준 높은 의료진과 최신 의료설비를 갖춘 병원으로, 전상자 치료가 아니라 가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했다.⁵⁵⁾

당시 부산은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이 몰려 있었지만, 식량부족으로 영양 상태도 나쁘고 위생 시설 미비 등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넘쳐났다.⁵⁶⁾ 부산 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왔다.⁵⁷⁾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로 새벽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어 환자들끼리 다툼이 잦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발부한 진료권은 암시장에서 비싸게 팔리기도 했다. 의사들의 명성이 소문이 나자 너넉한 환자들까지도 입원하려고 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직원이 환자 상태와 빈곤상황을 고려해 진료권을 배부하기도 했다. 한 의사는 이 때문에 병원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환자와 치료 인원의 괴리는 의사들에게 날마다 우울하게 했다고 회고했다.⁵⁸⁾

개원 이후 환자들은 병원 문 앞으로 몰려들었다. 5년 동안 환자의 쇄도는 그칠 줄 몰랐다. 병상에는 중환자들이 늘 만원이었다. 서독 적십자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와 한국인 직원과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술실이나 구급차에서 매일 몰려드는 환자들을 위해

독적십자병원 17일로 설립5주년 맞아. 『평화』 1959.3.12., ‘수고하셨습니다’. “Aide Memoirs” Nov. 13, 1958.

55) 『경향신문』 1958.5.17., ‘서독적십자병원 17일로 설립5주년 맞아’.

56) 『국제신문』 2017.11.12., ‘여기가 정말 유령도시였던 부산 맞나요?’.

57) 『부산일보』 1959.3.13., ‘서독병원에 기념품 전달’.

58) 정규환, 앞의 책, 140쪽. *100 Jahre deutsch-koreanische Beziehungen Bilanz Einer Freundschaft*(독일과 한국 100년 관계: 우정의 성과), 1984, p.61.

헌신적으로 치료했다.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외과 수석의사를 지낸 다에르(Eberhard Daerr) 박사는 무료 치료보다도 오로지 도우려고 하고 받은 것 없이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가 환자들이 다가 온 요인이 되었다고 회고했다.⁵⁹⁾

서독병원은 독일 정부의 경제적 지원으로 한국에서 가난 때문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에 대해 인도적 이념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졌다. 당시 전란을 겪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많은 환자들은 누워서 병원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는 걸어 나갈 수 있었다.

진료는 1954년 5월 개원 이래 1959년 2월까지 계속되었다. 3년 동안 입원 환자 7,916명과 외래 환자 162,602명을 치료하였고, 1958년 12월까지 5년간 입원환자 21,562명과 외래환자 277,250명을 치료했다. 외과 6,255명과 산부인과 3,529명 등 9,784건의 수술을 했으며 별도로 소수술이 6,551건이었고, 또한 6,025명의 신생아 출산도 포함되었다. 산부인과에는 복강경을 이용한 최신 시술이 가능해 환자가 많았다. 후베르 원장은 아이를 30명이나 받아낸 날이 있을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이듬해 3월까지 진료를 계속했으므로 입원환자는 22,516명, 외래 환자는 282,468명으로 늘었다.⁶⁰⁾ 사망자가 1,300여 명에 이른 것은 일부 의료진의 실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말기의 중환자가 많았기 때문이었다.⁶¹⁾

59) 정규환, 『부산지역 의료 130년사』, 140쪽; *100 Jahre deutsch-koreanische Beziehungen Bilanz Einer Freundschaft*(독일과 한국 100년 관계: 우정의 성과), 1984, p.60.

60) 『부산일보』 1957.5.18., ‘대통령이 업적 찬양’. 『경향신문』 1959.3.11., ‘서독병원에 감사장, 손보사부장관’. 『국제신문』 1959.3.15., ‘잘 가요, 생명의 은인들’. 『동아일보』 1959. 3.15, ‘5년간에 25만을 치료’.

61) 후베르 병원장이나 독일 적십자사 측에서 사망자 규모를 은폐시키지 않았다(*100 Jahre deutsch-koreanische Beziehungen Bilanz Einer Freundschaft*(독일과 한국 100년 관계: 우정의 성과), 1984, p.59).

<표 1> 5년간(1954~1958) 진료 통계⁶²⁾

(단위: 명)

	계	1954	1955	1956	1957	1958	
입원환자	21,562	2305	4480	4750	4857	5170	
외래환자	277,250	32410	65550	47904	67159	64227	
수술	16,335	외과 (6,255)	605	1541	1217	1341	1451
		산부인과 (3,529)	297	665	742	877	948
		소수술 (6,551)	643	1287	1098	1337	2186
출산	6,025	239	1055	1298	1503	1930	
사망	1,333	129	263	353	269	319	

한편, 서독 적십자병원의 또 하나의 임무는 한국인 의료기술 요원의 양성 사업이었다. 개원 후 이듬해 1955년 6월 말부터 부산에 있는 서독 병원과 스웨덴병원에서 약 2개월 과정으로 한국 의사의 재훈련을 위한 실습을 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각 시도 관공립 병원에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침식 일체를 병원에서 부담한다고 했다.⁶³⁾ 41명의 한국 의사에게 진료, 진단, 수술 등 임상 수련을 쌓게 하였다. 또한 폐디스토마 연구를 비롯한 풍토병 연구에도 기여했다. 외과 의사로 근무했던 김근호는 혈액 응고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증명하기 위해 병원장의 배려를 받아 토끼 30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나중에 독일에서 박사 학위 논문으로 이어졌다.⁶⁴⁾

62) *Deutsches Rotes Kreuz: DAS DRK · Korea-Hospital*(독일 적십자사), 1959.4, pp.6~7.

63) 『경향신문』 1955.6.10., ‘국내의사 재훈련, 서독·서전병원서’. German Embassy, “Note Verbale” Feb. 16, 1959, 국가기록원.

64) 『서독 적십자병원 폐쇄설에 관한 건』 1958.6.3. 국가기록원. 김근호, 『하얼빈』, 337~338쪽, *100 Jahre deutsch-koreanische Beziehungen Bilanz Einer Freundschaft*(독일과 한국 100년 관계: 우정의 성과), 1984, p.59.

몇 년이 지나는 동안 25명의 한국인 의사들은 이 병원에서 최신 의술을 익혀 독일인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과가 있었다.⁶⁵⁾ 김근호는 전남대 의대를 거쳐 한양대 의대로, 최하진 박사는 부산대 의대로 옮겨 의료진을 양성했고, 우원홍은 부산지역에서 산부인과로 명성을 얻었다.⁶⁶⁾ 또한 3년 과정의 간호학교를 병설해 무료로 운영해 60명이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⁶⁷⁾ 후베르 원장도 수업을 했고, 팍헨은 산부인과 과목, 다에르는 외과 과목 등을 가르쳤으며 간호사들도 강의를 했다. 한국인 김근호는 해부학 강의를 했다. 독일식 간호학 교육은 1학년에서 거의 전부가 실습이고, 2학년과 3학년에서는 이론 공부를 하였다.

김윤건, 김신의, 황필조, 김화자, 강승희, 송윤희 등 모두 60명을 양성했다. 학생들은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는 병원에서 근무했다.⁶⁸⁾ 병원이 폐원되자, 재학 중인 11명은 부산대 의대 간호학과로 전학시켰다.⁶⁹⁾

한국인 의료진들은 의료기술뿐 아니라 독일 의료진으로부터 “의사는 항상 어느 환자든지 완전히 마음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책임감, 합리주의와 봉사정신, 절약정신을 배웠다.⁷⁰⁾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감사와 셀 수 없는 편지를 받았다. 영양실조로 결핵성 골수염에 걸린 최정숙은 1955년 경남여중에 입학한 후 휴학계를 내고, 28일간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나왔다. 그녀는 절름발이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걷도록 완치된 것은 독일 의료진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현했다. 그는 졸업 후 중등학교 교사가 되었다.⁷¹⁾

65) 후버(우원형 의사 역), 『재부 주한서독적십자병원 5년기』

66) 『동아일보』 1977.10.5. ‘서독바이러스 전문가 게르마르 박사.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1, 1144쪽.

67) 『개발지원, 냉전시 인도적 지원』, 『독일 의사잡지』 2016.3.

68) 후버(우원형 의사 역), 『재부 주한서독적십자병원 5년기』, 『평화』 1959.3.12., ‘수고 하셨습니다.’

69) 정규한, 앞의 책, 139쪽.

70) 우원형 증언, 2018.4.3.

71) 『동아일보』 1959.5.17. ‘서독병원이 겪은 3년’. 후버(우원형 의사 역), 『재부 주한서독

1956년 9월 28일 미 8군사령부 광장에서 후베르 서독병원장은 화이트 미 8군사령관으로부터 자유훈장을 받았다.⁷²⁾ 자유훈장은 자유수호에 애쓴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1957년 5월 16일 이승만 대통령은 서독병원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병원의 업적을 찬양하는 친서를 전달하였다.⁷³⁾

서독병원이 문을 닫을 때, 많은 감사의 표시가 있었다. 1959년 3월 14일 병원 폐원식에서 아이작 대커 미 8군사령관(부산 기지사령관 대령 대독)이 병원 업적에 대해 감사를 나타냈다. 한국 측에서도 보사부 장관을 대리한 이병학 방역국장,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리한 현규한 보건국장, 김규진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해서 인도주의에 입각한 박애정신으로 이루어진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⁷⁴⁾

1959년 3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은 경무대에서 후베르 서독병원장에게 공익포장을 수여했다. 정부 차원에서 3월 31일 서독 적십자병원의 인도적 봉사에 대해 주한서독대사관 앞으로 사의를 나타내는 공한을 발송했다.⁷⁵⁾ 독일에서도 적십자사 명예훈장, 연방 공로십자훈장을 수여했고,⁷⁶⁾ 폰 브렌타노 서독 외상은 1959년 3월 28일 서독 적십자병원의 봉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3. 병원 폐쇄 요인들

1954년 5월 이래 지속된 서독 적십자병원은 약 5년간 활동을 마치고

적십자병원 5년기」.

72) 『경향신문』 1956.9.29., ‘서독병원장을 표창’.

73) 『부산일보』 1957.5.18., ‘대통령이 업적 찬양’.

74) 『동아일보』 1959.3.15., ‘5년간에 25만명 치료’.

75) 『동아일보』 1959.3.20., ‘공익포장 수여, 서독병원장에’. 『동아일보』 1959.3.29., ‘폐쇄 후에도 협력’.

76) *100 Jahre deutsch-koreanische Beziehungen Bilanz Einer Freundschaft*(독일과 한국 100년 관계: 우정의 성과), 1984, p.59.

1959년 3월 14일 폐원되었다.⁷⁷⁾ 그 배경에는 병원 건물로 사용하고 있던 부산여고 교사의 반환문제와 한국 정부의 협력, 독일 정부의 정책적 고려 및 의료진 사이의 갈등 등이 있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서독병원이 철수하려는 직접적인 동기가 부산에서 사용 중인 시설이 학교 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당하는 점에 있다고 파악했다.⁷⁸⁾ 의료지원국인 노르웨이, 덴마크, 인도 병원도 철수하고 이탈리아병원도 1954년 11월에 철수했다.

정전협정 후부터 군에 의해 징발된 학교 시설의 반환요구가 본격화되었다. 제5육군병원이 사용 중인 부산청과시장, 제23육군병원이 사용 중이던 울산농고 등 군에서 징발된 학교와 기관시설이 점차 반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에도 군에서 사용 중인 학교가 다수 남아 있었다. 문교부에서는 1957년 9월 초 부산수산대(미 공병대), 대전고(미 통신중대), 대구 수창초등학교(육군 헌병학교) 등이 연내까지 반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⁷⁹⁾

1957년 11월 18일 문교부 장관이 외무부 장관에게 서독 적십자병원이 반항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여중학교 교사를 명도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후베르 병원장은 교사 반환 요구를 수십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2,600여 명이 이르는 학생들이 가교사 또는 천막을 이용하고 있어 수업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보건에도 폐단이 막심하다면서 서독 공사에게 연락해 조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병원은 국내 의과대학 또는 도립병원 등에 전속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⁸⁰⁾ 부산여고 학생들은 구덕산 아래 가건물과 노천 천막에서 교

77) 부산시청 홈페이지의 ‘서독병원과 월남난민수용소’ 설명에서는 1954년 5월 7일 진료가 계속되었다고 잘못 기술되고 있다(www.busan.go.kr/bhhisite0303 검색일: 2018. 4.17.).

78) 『서독병원 존속 문제에 관한 건』 1958.8.13., 국가기록원.

79) 『동아일보』 1955.6.7., ‘징발건물 속속 반환’. 『동아일보』 1957.9.9., ‘연내까지 반환, 군사 사용중의 학교’.

육을 받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의료진이었던 우원형은 무료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폐원에 이르는데 대해 아쉬울 뿐만 아니라 화가 났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에는 교육보다 환자 치료가 더 절박했다고 말했다.⁸¹⁾

이 문제에 대해, 1958년 1월 15일 보사부 차관이 후베르 원장을 만나, 병원 폐쇄 여부에 대해 질문을 했고, 병원의 계속적인 활동에 대해 토의했다. 후베르 원장은 독일 병원이 계속 운영되는 점에 대해 환영하지만, 스칸디나비아 3국이 지원하는 메디컬센터 건립과 같은 가능성을 기대하였다.⁸²⁾ 한국 정부도 서독병원의 계속적인 활동을 기대했고, 시민들도 병원이 폐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청원서를 보냈다.

하지만 1958년 5월 28일 바이츠(Heinrich Weitz) 서독적십자 총재는 서독병원의 구호사업을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자발적인 봉사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 않았고 병원에 아무런 원조도 하지 않았으며 의사와 간호사들이 가장 원시적인 환경 속에 일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은 우리나라와 아무런 협정도 체결하지 않았고 병원 측에서 아무런 원조 요청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여론으로부터 이웃 나라의 원조를 받아들일 태세도 갖추 줄 모르는 정부라고 비판을 받았다.⁸³⁾

1958년 6월 서독병원 폐쇄설이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자, 보건사회부에서는 주한 서독 공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6월 9일 킨들러(Arno Kindler) 서독 영사를 비롯해 병원 측 대표가 보사부 의정국장실에서 문교부 대학교육 과장, 외무부 구미과장 등이 참석해 서독병원의

80) 『부산여자중학교 교사 명도 의뢰의 건』, 1957.11.18., 국가기록원.

81) 부산여고 편, 『부산여고60년사 194~2005』, 부산여고60년사편찬위원회, 2005, 108~121쪽. 우원형 증언, 2018.4.3.

82) “G. Huwer to Dr. Ha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18/158, 독일적십자사.

83) 『경향신문』 1958.6.1., ‘인방의 원조를 받아들일 태세도 갖추 줄 모르는 정부’.

장차 임무에 대해 논의를 했다. 한국 측은 의과대학 교육과 훈련을 위한 공동사업 문제에 대해 제1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제의하고 사업지로 부산, 대구, 광주 등을 논의해 여러 여건을 고려해 광주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의하였다.⁸⁴⁾ 당시 문교부에서도 ‘서독적십자병원 인수대책위원회’(가칭)를 조직해, 1958년 9월 23일 차관실에서 인수 업무 추진을 위한 협의를 했다.⁸⁵⁾ 이때 한국민간원조사령부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독일 정부에서는 부산 적십자병원이 영속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1957년경부터는 폐쇄를 검토했다. 1954년 2월 미국과 체결된 협정에서도 폐쇄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야전병원 임무를 내세운 병원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현실적 역할과 괴리가 있었다.⁸⁶⁾ 그 사이 일부 의료진의 갈등도 있었다. 한국인 직원들이 독일 의료진을 신뢰와 감사의 마음으로 대해 병원은 원만하게 운영되었지만,⁸⁷⁾ 병원장의 리더십, 열악한 시설, 외국 생활의 고독감 등은 독일 의료진 사이의 갈등 요인이 되었다.

대학 병원 출신 로젠바움(Franz J. Rosenbaum)을 비롯한 일부 의사들은 후베르 원장의 독선적 운용과 외과 과장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환자 사망 의혹, 구타 등을 폭로했다. 또한 독일 적십자사 본부와 노동재판소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병원의 폐쇄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독일 적십자사 본부와 주한 공사가 병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 사정에 대한 몰이해와 개인 불만 등이 덧붙여져 확대된 것

84) 당시 부산에는 침례교병원, 아동구호재단 등 외국 자선병원이 10곳에 이르렀다.

85) 「서독병원에 관한 실무자 회의」 1958.6.9., 국가기록원. 「서독적십자병원 광주 이전에 따른 관계관 회의 개최의 일」 1958.9.18., 국가기록원.

86) “Department of State Memo: German Red Cross Hospital in Pusan” Dec. 2, 1958, 국편 미 국무부 문서.

87) 루이제 폰 외르첸 수녀원장, 「감사했던 일」, *Deutsches Rotes Kreuz: DAS DRK · Korea-Hospital*, p.22.

으로 정리되었다.⁸⁸⁾

이상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국 서독병원은 폐원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때 독일 정부는 의료단 지원 협정을 미국과 체결했기 때문에 폐원 전에 미국의 의증을 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독일의 폐쇄 요구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당시 독일은 한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가 아닌 그들과 병원 폐쇄 후 새로운 의료지원계획이 진행된다면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했다. 1958년 연말에는 서독병원이 전남대 부속병원으로 이전하고, 서독 정부에서 의료기관을 위해 매년 50만 달러를 원조할 것이라고 보도되기도 했다.⁸⁹⁾

당시 보건사회부에서는 서독병원 폐쇄 후 원조에 대해 전남대 의과대에 의료사업을 원조하거나 새로운 연구실을 설치하든지 병원기재는 전남대 의과대학으로 이관하기를 희망했다. 만약 서독 정부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업 장소를 정부와 합의해서 결정하기를 기대했다.⁹⁰⁾ 하지만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의료기자재는 부산대 의대, 광주의대(나중에 전남의대)에 배분되었다. 독일 정부의 연방 예산으로 조달된 모든 물품은 정부의 재산이어서, 독일 적십자사의 임의 처분 대상이 아니었다.⁹¹⁾

1955년 개교한 부산대 의대에 기증한 X-Ray촬영기와 부속 기기는

88) 『한국일보』 1959.2.1., ‘드러난 인술의 난맥지대’. 『경향신문』 1959.2.21., ‘물의 속에 문닫는 서독병원’. 한 연구자는 파견된 의사와 간호사 가운데 나치주의에 동조해 인종주의적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Young-Sun Hong, *Cold War Germany, Third World, Global Humanitarian Regime*, p.84).

89) 『경향신문』 1958.11.20., ‘서독서 매년 50만불 원조’. 『경향신문』 1959.2.26., ‘서독병원 인수문제’. 『동아일보』 1959.2.26., ‘의료연구기관으로 존치’. “Department of State Memo: German Red Cross Hospital in Pusan” Dec. 2, 1958, 국편 미 국무부 문서.

90) 외무부, 『서독적십자병원 폐쇄 후 원조에 관한 보건사회부 측의 견해』, 1959.3.3., 국가기록원.

91) 『한국에 세워질 독일 적십자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방 정부와 독일 적십자사 간의 합의』 1954.2.18., 독일연방자료보존실 문서.

투시는 물론 단층·동맥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국내에서 우수한 기기 중 하나였다. 부산대 의대는 이 외에 심전계 대소 2개, 기초대사 측정기, 내경을 비롯한 치과용 세트 10여 중, 물리치료기, 실험실 기구 50종, 약품 250여 중, 세척기, 트럭 2대 등이었다. 방사선과에 피커 액션 포터블, 투시장치(Simens 1250MA)를 인수받아 지역사회에서 최신 설비를 갖추었다. 당시 서독병원에서 근무했던 배명창, 김낙규 등이 합류함으로써 실력까지 견비하게 되었다. 내과에서는 심전도기, 심음도 등 설비와 함께 임상기록도 인계해 진료에 활용했다.⁹²⁾

IV. 독일 의료지원 활동의 의료지원국 지위 여부

부산에서 5년간의 독일 의료지원 활동에 대해 의료단 파견 당시 공식 통보를 받았던 외무부에서 발간한 『한국외교 30년』에 전혀 언급이 없었다.⁹³⁾ 국방부에서도 1976년 9월 의료지원국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부산 태종대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에도 독일은 기억되지 않았다. 1967년 3월 4일 하인리히 리브케 독일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독일 방문에 대한 답방을 할 때 부산을 방문했지만, 부산시에서는 서독 병원 터를 방문하도록 주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원 활동을 강조하지 않았다.⁹⁴⁾

92) 부산대학교총장, 『부산서독적십자병원 장비인수에 관한 일』 1959.4.24., 국가기록원. 부산대학교병원60년사 편찬위원회, 『부산대학교병원사 1877~2016』, 2017, 22, 74, 151, 155쪽.

93)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1948~1978』, 1979, 50~51쪽. 국방부에서는 6·25전쟁 68주년을 맞아 지난 6월 22일 독일 의료지원단 활동을 전쟁 시기 의료지원국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유엔의 공인 과정은 아직 남아있다.

94) 『국제신보』 1967.3.4., ‘뤼브케 대통령 역사적 來釜’. 『서울신문』 2013.3.8., ‘1967년 부산 방문한 서독 뉘브케 대통령 환영’.

독일의 의료단 파견은 스웨덴을 비롯한 의료지원 5개국인 이미 전쟁 초기부터 활동한 점과 비교해서 크게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테나워 서독 수상은 1953년 4월 초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한국 전선의 부상자들을 위해 서독 야전병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세계와 협력을 상징화할 의도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연합군을 위해 병원 부대를 제안했다. 1954년 2월 미국과 지원 협정을 체결했을 때, 협정 주체가 미국과 독일로 되어 있었으나, 미국은 개별 국가로서 아니라 한국에서 유엔군의 대행 국가로서 미국이었다.

독일 정부는 부산 적십자병원의 존재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를 대표하는 미국 정부가 유엔사무총장에게 북한과 중국군 당국에 통보되기를 원했고, 이에 따라 함마술드 유엔사무총장은 1954년 3월 중순 북한과 중국에 통보했다. 미국에서도 그 의미를 미 국가안보회의에서는 이해 3월 하순 제출한 보고서에서 “동맹군 병력 중 유일하게 증강된 것은 서독에서 온 의료부대뿐”이라고 평가했다.

임무에 대해서도 독일 정부는 의료단 지원이 전후 구호 사업이 아니라, 유엔군 지원을 목표로 했다. 다만, 서독적십자사의 시설과 의료진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서독적십자사는 야전병원 대신에 피난민들의 집결지가 된 부산에서 한국인 병자들을 위해 봉사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지원국의 주요 임무는 전상환자 치료, 부수적으로 민간인 진료를 했다. 이 때문에 서독의료단은 한국보건의 사업 원조나 ‘한국전쟁 복구지원’으로 이해하기도 했다.⁹⁵⁾

한국 외무부에서는 서독병원이 아테나워 수상이 방미 시에 유엔의 이념 아래 서독으로 하여금 적십자병원을 국제연합 산하 의료기관으로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것을 협약하여 유엔군 산하 주한의료기관으로서

95) 『동아일보』 1954.1.26., ‘한국보건의사업원조, 서독의료단 불원 着韓’. 외교부, 『독일개황』, 2017, 187쪽.

중요 임무는 유엔군 전상환자 치료와 민간인 구호사업으로 인식했다. 실제 후베르 병원장은 병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 예하로 들어감으로써 실질적인 면에서 미 육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운영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전협정 체결 후 참전국 잔류 병력은 해외 참전용사인지에 대해 주요 참전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 보훈부에서는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이하여 1995년 이래 참전자 및 배우자를 위한 연금을 위한 전쟁기간을 1950년 6월 27일부터 1955년 1월 31일까지 지정했다.⁹⁶⁾ 참전기간 범위는 미 의회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된다. 한국전쟁의 실제 전투기간은 1953년 7월 27일 끝났지만, 공식적인 한국전쟁 기간(official Korean war era)은 정전협정 체결 후 불안한 평화협상 기간(a period of uneasy peace negotiations)을 포함해 정했다.⁹⁷⁾ 한국에 파병을 했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한국전의 연금 범주로 1950년 6월 27일부터 1956년 4월 19일까지 정했다. 이 범주를 준용한다면, 1954년 5월에 본격적으로 진료를 개시한 독일 의료지원 활동도 한국전쟁의 전투기간(combat period)에 해당된다.⁹⁸⁾

물자지원국으로 인정된 39개국 가운데 파라과이,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교황청 등은 전쟁 시기가 아닌 정전협정 체결 후인 1954년 1월부터 1956년 6월까지 지원한 국가였다.⁹⁹⁾

96) “Eligible Wartime Periods”(www.benefits.va.gov/pension/wartimeperiod.asp, 검색일: 2018.4.12.).

97)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최근의 휴전 협정은 정전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갤로핀 국제적십자연맹 총재→독일적십자사 사무총장』 1953.8.21., DRK 문서.

98) Office of Program and Data Analysis,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Analysis, “Data on Veterans of the Korean War”, June 2000; “2003 Report of the Review of Veterans’ Entitlements”(Clarke Report)(www.dva.gov.au/consultation-and-grants/reviews/clarke-review, http://www.koreanwar-educator.org/topics/brief/p_veteran_facts.htm, 열람일: 2018.4.18.), p.245; Paul M. Edwards,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p.144(에드워드는 전투기간을 1954년 1월까지로 기술했다).

결론적으로 의료지원국 및 물자 지원국 외에 제3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독일 의료지원 활동도 파견 당시와 운영에서 유엔군과의 협조 정신을 강조했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한국전 전투기간 산정의 예를 보더라도 유엔군 지원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저서 및 논문

- 박지옥, 『한국전쟁과 부산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의 의료구호 활동』, 대한의사학회, 『의사학』 91-1, 2010.6.
- 박홍순, 『6·25전쟁과 유엔의 역할』, 『6·25전쟁의 재인식』, 기파랑, 2010.
- 문태준, 『한국전쟁이 한국의료에 미친 영향』, 『의사학』 9-2, 2000.12.
- 양영조, 『6·25전쟁시 국제사회의 대한 물자지원 활동』, 『군사』 87, 2013.6.
- 부산대병원 60년사편찬위원회 편, 『부산대학교병원사 1877-2016』 1-2, 2017.
- 부산여고 편, 『부산여고60년사 194~2005』, 부산여고60년사편찬위원회, 2005.
- 손문식, 『UN군지원사』, 국방군사연구소, 1998.
- 손규석·김상원·조성훈, 『6·25전쟁과 UN군』, 군사편찬연구소, 2016.
- 여인석 외, 『한국의학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2.
-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1979.
- 정규한, 『부산지역 의료 130년사』, 연문씨엔피, 2008.
- 전남대의대 의학전문대학원 편, 『사진으로 보는 70년사』, 2015
- 최형식, 『독일의 재무장과 한국전쟁』, 혜안, 2000.

Deutsches Rotes Kreuz: DAS DRK ·Korea-Hospital(독일 적십자사), 1959.4.

Deutsche Rote Kreuz(우원형 역), *Fünf Jahre DRK-Hospital Pusan: der Korea-Einsatz des Deutschen Roten Kreuzes*(DRK 병원 부산 5년: 독일 적십자사의 한국 사명), 1959.

Komitee 100 Jahre Deutsh-Koreanische Beziehungen, *100 Jahre Deutsch-*

99) 양영조, 『6·25전쟁시 국제사회의 대한 물자지원 활동』, 77~78쪽.

Koreanische Beziehungen Bilanz Einer Freundschaft(독일과 한국 100년 관계: 우정의 성과), 1984.

Young-Sun Hong, *Cold War Germany, Third World, Global Humanitarian Regime*, Cambridge Univ. Press, 2015.

2. 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Der Spiegel*.

『독일 의료부대 파한 문제』1954.2.16, 이승만관계서한 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서독의료단 방한에 관한 서한 이첩에 대한 답신의 건』1953, 국가 기록원.

“Red Cross Hospital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Korea”, 1954.3.26. NARA.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SA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oncerning Participation of German Red Cross Hospital in Connection with the UN Operations in Korea” 1950~56, 국편.

“Dispatch of a German Field Hospital Unit in Korea” 1953.6.15., NARA.

“RG(UD-7D 78) UNKRA, NARA(군편, CD 1204).

Rechtsverhältnisse der im Ausland tätigen Angestellten und Arbeit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53-1964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 19235, 연방자료 보존실)

Internationlae Beziehungen - Republik Korea(Süd-korea), Bd. 1, 1955~1959 (Bundespräsidialamt / 512)

Deutsches Rotes Kreuz - Allgemeines, 1959-1968 (Bundeskanzleramt /5547)

『전쟁 한국』 치료한 독일병원 있었다, 『월간중앙』 2010.5.

국방부, 『6.25 전쟁지원국 현황 연구』, 2012.5.10.

투고일 : 2018. 06. 11. 심사완료일 : 2018. 07. 04. 게재확정일 : 2018. 07. 18.

| Abstract |

The Dispatch and Achievements of the German Medical Unit in the Korean War

Cho, Sung-Hun

April 1953, the German government conveyed the will to dispatch a field hospital for UN forces to President Eisenhower and the UN headquarters. the German Red Cross Hospital was established in Busan in May 1954, and operated until March 1959. For five years, the hospital treated more than 300,000 patients, including 22,516 inpatients and 282,468 outpatients. Of these, 6,025 newborn babies were included. However, since the West German Red Cross Hospital was active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of July 27, 1953, it was merely briefly described the Korean War history.

The dispatch of the West German Red Cross Hospital has been delay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fact that other five countries have already been active during the war. However, Prime Minister Konrad Adenauer promised President Eisenhower that he would provide a field hospital for the wounded of the Korean front, with the intent of symbolizing cooperation against communism. In February 1954, when the agreement was signed with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but the United States was not an individual country but the executive agent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Korea. The German wante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inform the presence of the Busan Red Cross Hospital to North Korea and the Chinese Central Authority an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ag Hammarskjöld, did so accordingly.

As for the mission of the hospital, the German government also aimed to

support UN troops, not medical relief projects. The German emphasized that the medical aid was intended to support the war effort under the overall plan of the UNC against the communist invasion. Günther Huwer, the hospital director, said the hospital was able to ask the US Forces for help in a practical sense by entering the UNC in order to carry out its mission and that it was crucial in its operations.

In conclusion, given that the German medical support activities emphasized the spirit of cooperation with UN forces at the time of dispatch and operation, it can be evaluated as a UNC support activity.

Key words: Medical Aid Countries, West German Red Cross Hospital, Field Hospital, UN's Mission, Günther Huwer

